

보도일시	2025. 05. 27. (화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정책 제안서 전달받아

- “깨끗한 공기, 국민의 권리... 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 함께 모색”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27일(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로부터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조직과 전국 환경단체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멘트 산업의 폐기물 연료화, NOx 배출, 대기오염물질 감시 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기준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기후위 위성곤·위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시멘트 산업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만큼, 이제는 환경적 책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전환이 필요하다.” 며, “깨끗한 공기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위한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단지 환경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조용한 노후를 건강하게 살고 싶은 어르신들의 소망이 담긴 국민적 요구” 라며, “기후위는 산업계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폐기물 연료화 관리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 개선 ▲충탄화수소(THC)실시간 감시 체계 도입 ▲표준산소 농도 기준의 국제적 수준 정비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기후위에 제안했다. /끝/



<사진> 2025. 05. 27.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전달식